

ECONOMICS NEWSLETTER 제 32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김재영 · 이근 / 편집인 : 조성진 / 편집조교 : 정진용 / 발행일 : 2015년 2월

이준구 교수 정년기념 특별기고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



이준구 교수

그때는 서른을 갓 넘은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관악산이 올라다 보이는 7동의 연구실 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쿵쿵쿵쿵 뛰었는지, 꿈에 그리던 모교로 돌아온 벅찬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31년이란 세월이 물처럼 흘러 이젠 퇴임식 날짜를 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어깨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한 주일 한 주일을 보내다 보니 한 학기가 지나고, 한 학기 한 학기를 보내다 보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논문 쓰고, 책 쓰며 보낸 지극히 평범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연구실로 출근해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지난 35년의 교수생활 동안 재정학과 미시경제이론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르쳐 왔습니다. 서른다섯 번이나 가르쳤으면 지겨울 만도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될 때면 언제나 가슴이 설렘했습니다. 대형 강의실을 꽉 채운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매를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강의실에 들어가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서 엔도르핀이 샘솟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난 지난 세월 동안 이 마약에 취해 살아왔나 봅니다. 봄이 되면 화사한 꽃으로, 그리고 가을이 되면 색색의 단풍으로 물드는 우리 캠퍼스도 내 사랑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날 모자 눌러쓰고 산보라도 나가면 모든 시름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산보하는 나를 발견하고 유쾌한 인사를 보내는 제자들과의 교감은 내 마음을 한껏 들뜨게 만듭니다. 우울증에는 햇빛요법이 최고라는데, 햇살 좋은 날의 산보 덕분에 우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캠퍼스가 너무 좋아 지난 십여 년 동안 철따라 바뀌는 캠퍼스의 모습을 줄곧 사진에 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도서관 뒤의 뿔뿔길과 그 옆의 은행나무 광장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바람에 예전의 전원적 분위기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내가 16동 뒤편에 만든 조그만 꽃밭도 항상 기억에 남을 겁니다. 사회대가 이곳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그곳은 공사의 잔재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황량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걸 개간해 야생화들을 심기 시작했는데, 83동이 들어서 햇빛을 차단하는 바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음지에서 살아가는 꽃들을 간신히 찾아 심었다니, 거듭되는 주변 건물공사로 인한 수난이 그치지지를 않더군요. 내가 퇴임하고 나서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과연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뒤돌아보면 정말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모교에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동안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지난 31년이 더욱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생활할 수 있었던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난날을 돌아보면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걸 느끼는 법입니다. 나 역시 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비록 큰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아왔으면 그걸로 된 것 아닐까요?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인데요, 뭐, 이제 정든 곳과 정든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포해야 할 시간이에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이지순 교수 정년기념 특별기고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엉뚱한 질문 던지기



이지순 교수

교정에 최루탄 가스가 자욱하던 팔십 년대 중반에 관악 기슭으로 온지 여인 삼십 년, 그동안 정들었던 것들에게 작별을 고포할 때가 되었다.

만나면 헤어지고 오면 또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정년을 맞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 그저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뿐, 당분간은 교정을 거닐고 책을 읽으며 글을 쓰고 학생들을 만나는 일상을 계속하게 될 터이니 크게 바뀔 것도 없다. 물론 신분이 달라지니 학교에 대한 소속

감도 엷어질 테고 그래서 모든 게 조금씩 낯설어지겠지만 크게 패념하지 않으려 한다. 그게 자연의 섭리니까.

정년을 맞으면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격의 없이 어울릴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 아쉬울 것이다. 청신한 기풍을 지닌 어린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는 것이 평생의 큰 낙이었다. 이제 후배 교수들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 갈 때가 되면 가는 게 순리이다. 간혹 그 때를 망각하고 미적거리다가 추한 꼴을 들어내기도 하니 경계할 일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명예교수라는 것을 핑계로 한 동안 이곳에서 더 얼짱거리려 드는 내 처사가 과연 잘 하는 일일까?

여태껏 인간사회에 관해 공부한답시고 매달려 왔으면서도 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이기적 본성의 발로를 당연시 하는 경제학적 접근방식과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종교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신상필벌의 원칙이 작동하는 시장 자본주의와 만인 평등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는 양립 가능한가? 효율성과 형평성은 양립할 수 없는가? 어쩌면 이것은 정답이 없는 물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좀 더 쉬운 문제를 보자.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얼마일까? (The optimal size of population of a country) 삼천 만, 오천 만, 칠천 만, 일억? Optimality Analyses의 대가들인 경제학자들이라면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면 인구고령화나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적정할까 하는 것 역시 흥미로운 질문이다. (What is the optimal life span of human beings?)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답을 찾아도 문제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가 사천만 명으로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의 인구가 적정치보다 천만 명이나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 넘쳐나는 인구를 어떻게 해야 하지? 두 번째 질문 역시 답을 알아도 문제이다. 가령 적정 수명이 80세라면? 그렇다면 지금 80세가 넘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하는가? 어떤 정신 나간(?) 경제학자가 그런 주장을 편다면 요즘 같은 SNS 세상에서는 단 일분도 버티지 못하고 매장되기 십상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아무도 이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리라.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 문제들을 모른 채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다.

경제학부 학술행사

Innovations systems and Economic Performance



2014년 9월 23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SSK 사업단(서강대, 인하대), BK21 플러스사업단(서울대 경제학부), 기술경영경제학회의 주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본 행사에서는 혁신 시스템과 경제적 성과(Innovations systems and Economic Performance)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세 세션으로 나누어 다양한 학술적 연구가 소개되었다. 서울대경제연구소장인 이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행사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국대학교의 임채성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Sussex 대학의 Ed Steinmueller 교수가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the Creative Economy”라는 연구를 발표했고, 이어

Aalborg 대학의 Bengt-Ake Lundvall 교수가 “Global value chains, innovation systems and interactive learning”라는 연구를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강진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Oslo 대학의 Jan Fagerberg 교수가 “One Europe or sever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European stagn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서강대학교의 전현배 교수가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Sector: Entry, Exit, and Reallocation”이라는 연구를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강대학교 박정수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이경 박사가 “Grant Decision Bias, Workloads, and Examination Quality of Patent Office”라는 연구를, 상명대학교의 오철 교수가 “Catching-up with similar or different technologies?”라는 연구를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정수 교수의 폐회사로 학술대회의 막이 내렸다.

The 11th Joint Confer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년 11월 14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제 11회 서울대-동경대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 동경대학교 국제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Labor Market and Consumer Issues in East Asia”를 주제로 열렸다. Shin-ichi Fukuda 국제일본경제연구센터장과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행사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주병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동경대학교 Andrew Griffen 교수의 “Fertility and Maternal Labor in Japan: Conflicting Policy Goals”라

는 연구발표와 서울대학교 이철인 교수의 논의가 있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류근관 교수가 “Consumers are not like firms in the credit market”이라는 연구를 설명했고, 동경대학교 Daniel Marszalec 교수가 토론했다. Shin-ichi Fukuda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다음 세션에서는 먼저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가 “Son Preference, Sex-Selective Abortions, and Parental Investment in Girl: Evidence from South Korea”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동경대학교 Ryuichi Tanaka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동경대학교 심성규 교수가 “On the Job Training and On the Job Search: Wage Training Contracts in a Frictional Labor Market”이라는 연구를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김영식 교수의 토론을 끝으로 본 컨퍼런스가 끝났다.

Income Inequal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 for Sustainable Growth: Dialogu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014년 12월 10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단,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센터 및 국제노동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으로 “소득 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기구와의 대화”를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G20 국제협력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국제노동기구 연구부장 Raymond Torres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소득 불평등과 성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은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우선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Nicolas Ruiz가 “Can pro-growth policies lift all boats? An Analysis Based on Household Disposable Income”로 연구를 설명했고, 뒤이어 국제노동기구(ILO) 이코노미스트 Matthew Charpe가 “Inequality and Growth-analyzing the impacts of inequality”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보민 팀장이 “Inequality and Growth-Nonlinear Evidence”라는 연구와, 서울대학교 김세직 교수가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under A Synthesis Model of Endogenous and Neoclassical Growth”라는 연구를 소개했다. “소득불평등 관련 이슈”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현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번 순서에서는 이근 교수가 “Role of Big Business in the

Growth-Inequality Nexus”라는 연구를 발표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민수 부연구위원이 “소득불평등과 경쟁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발표했고, 이상현 ILO 부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소득불평등의 여러 측면들”이라는 연구를 설명했다. 뒤이어 서울대학교 표학길 명예교수가 “실물 및 금융 부문의 결합과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연구를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은 “소득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였고, IMF 지출정책부장인 Benedict Clements가 “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서 OECD 부국장인 Luiz de Mello가 “Structural Reforms and Public Governance for Inclusive Growth”라는 연구를, ILO 선임이코노미스트인 Uma Rani가 “From Macro to Micro-Income Security”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편주현 교수가 “불평등과 재정정책의 효과”라는 주제의 연구를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은 국제기구와의 대화시간으로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패널토론 시간이 있었다. 패널로는 OECD Luiz de Mello와 IMF Benedict Clements, ILO Raymond Torres, 그리고 최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20 연구지원단장이 참여하여 발표된 연구결과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얻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The 21st Century Capitalism in Korea



2014년 12월 16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빌딩에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사)동반성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주체연구소가 참여하여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이라는 주제로 토론과 논쟁의 장이 열렸다. 자본주의 전반적으로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세기 한국자본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정운찬 전 총리이자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했고, 성공회대학교, 서울대학교 김수행 교수와 서울대학교 박세일 교수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다.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특질”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가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 마르크스경제학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경상대학교 정성진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정태인 원장이 “피케티와 한국자본주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가 “자본주의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및 한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본 행사의 패널로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 홍익대학교 김종석 교수, 경북대학교 김형기 교수, 경상대학교 박승호 박사가 참여하여 논의의 질을 더했으며,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수상 및 동정

이석배 교수 Econometric Society 의 Fellow(석학회원)로 선출



우리학부 이석배 교수가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석학회원)'로 선출되었다. 'Econometric Society'는 경제학 전 분야의 Top Journal들 중에서도 명망이 높은 학술지인 『Econometrica』, 『Quantitative Economics』, 『Theoretical Economics』의 발간을 담당하고 있는 권위있는 경제 학회이다. 우리 학부에서는 지난 2010년 황윤재 교수가 석학회원으로 선출된 이후 2번째로 맞이하는 성과이다.

SJE, Scopus 등재 확정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한국금융경제학회, 한국발전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분기마다 발행하는 SJE(Seoul Journal of Economics)가 Scopus에 등재 확정되었다. Scopus는 이미 연구재단에서 KCI논문 대비가 중치 면에서 1.5~1.8배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받을 정도로(SSCI는 2배) SSCI 다음으로 인정을 받는 저널 평가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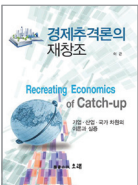
2014년도 전국 경제학부 축구대회(EFA컵) 우승 이후



안녕하세요? 13/14년도 경제학부 축구동아리 에코플러스(Ecoplus: 지도교수 경제학부 류근관) 감독을 맡았던 08학번 박기현입니다. 저희 에코플러스는 지난 2001년 경제학부 대학원생 주도 하에 창립된 이래 14년간 교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저희 팀은 매년 8월 서울 주요 대학 경제학부 동아리들이 모여 개최하는 전국경제학부 축구동아리대회(EFA컵)에서 2011년부터 4년 연속 결승 진출, 작년과 올해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다른 팀들의 집중관제를 받는 등 험난한 예선 일정을 소화하는 끝에 작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교내축구리그인 S리그에서도 정규리그 17경기 12승 4무 1패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4년간 팀원들끼리 서로를 챙겨주는 끈끈한 팀 분위기가 타고 내려온 전통이 팀의 호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팀은 경제학부를 대표해 교내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축구를 하고 싶고, 축구에 관심 있는 경제학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또 저희 에코플러스가 앞으로 더 좋은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경제학부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 신간 안내

경제추격론의 재창조



이근 지음
오래 (2014년 12월 10일 출간)

지난 20년 동안 경제추격이란 단일 주제를 천착해온 서울대 이근교수가 그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한 경제추격론의 재창조란 책을 냈다. 이 책은 그동안 나온, 세치원의 추격연구 즉, 국가차원, 산업차원, 기업 차원의 추격이라는 3권의 책을 통합하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세 가지 역설을 중심으로 한다. 세 가지 추격의 역설이란, 첫째, 선발자와 같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달라져야 한다는 새 경로창출의 역설, 급할수록 돌아야 한다는 우회전략의 역설, 외부에서 온 기회의 창은 성공적 비약의 창문이 될 수도 있고 추락의 창문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이다. 이 책은 한미교과, 국가, 산업, 기업, 기업의 흥망성쇠 즉, 추격, 추월, 추락을 숨겨져와 경제학이라는 일관된 틀에서 다룬 창조적 책이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강원택, 김병연, 안상훈, 이재열, 최인철 지음
21세기 북스 (2014년 10월 2일 출간)

대한민국 계층 갈등 극복을 위한 심층 분석!

계층 간의 격차가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 자살률은 높은 나라, 빈익빈부익부는 가속화 되는 대한민국 계층 간의 갈등 극복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는 계층 갈등 해법을 통한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리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서울대 교수 5인이 모였다. 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심리와 같이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는다. "한국에서 경제적 계층화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며 그 추이는 어떠한가? 한국에서의 경제적 계층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거나 심각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계층화는 개인의 의사결정,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타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의 경제적 계층화를 다루는 강원택 교수의 장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오늘



김근식, 김병연, 김병로, 김홍규 지음
늘봄플러스 (2014년 9월 5일 출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3권. 북한 문제들을 비롯한, 대북정책이 가지는 부조한 구성, 악한 전술적 고려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외교를 심도 깊게 파헤쳤다. 거시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지금의 북한은 어디쯤에 와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추론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김병연 교수의 장은 현재의 북한 경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겉으로는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생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과 무역이라는 내부 변화의 동력은 북한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장과 무역에 눈은 기꺼와 기업,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는 김정일의 정치적 의도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의 추격, 추월, 추락



이근, 박태영 지음
21세기북스 (2014년 11월 20일 출간)

이근 교수는 경제추격론 및 연습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글과 그외 글을 모아 새 책 '산업의 추격, 추월, 추락' 산업주도권의 변화와 추격사이클이론을 내었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한국 추격 및 추월에 따라 한국 산업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서는 바로 이 문제 즉, 각 산업의 주도권 혹은 주도기업이 왜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나라로 계속 이전되는가를 '추격사이클'이라는 새 이론으로 설명한다. 즉,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 경기순환 (불황)과 시장수요의 변화, 정부 규제의 변화 등 몇 가지 '기회의 창'들이 후발자의 적절한 전략과 선발자의 자만과 맞물릴 때 시장의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 이론을 휴대폰, 게임, 휴대용 음악 재생기, 반도체, 자동차, 철도, 제약 등 여러 산업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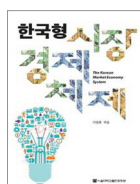
유럽의 발흥



양동후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년 9월 15일 출간)

유럽 발흥과 대분기에 관한 책들은 국내에서는 단편적인 내용만 소개되어 있을 뿐, 대부분 해외저자들의 번역서이다. 거시사(MACROHISTORY)와 동서양 비교경제사는 비교적 최신 분야이고, 이런 면에서 이 책은 국내에서 거의 최초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



이명훈 엮음 (김병연, 이근, 이철희 외 7인 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년 12월 10일 출간)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는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서이다.

신임 최승주 교수 인사말



최승주 교수

안녕하세요. 작년(2014년) 가을학기부터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한 최승주 교수입니다. 새 직장에서는 동료 교수님들의 환대와 배움의 열의로 가득 찬 학생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첫 학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2000년에 유학길에 올라 2006년에 미국 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에서 교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과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며, UCL에 재직 당시 학부와 대학원에서 주로 이 두 분야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있고, 해리 포터의 마법의 이야기가 탄생한, 소위 신사의 나라로 많이 알려진 영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나라일 수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경제학자(도)들에게는 생각 외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근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수많은 천재 경제학자들—Adam Smith, David Ricardo, John S. Mill, Thomas R. Malthus, Alfred Marshall, Francis Y. Edgeworth, John M. Keynes, 등등—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강의를 통해 혹은 연구를 하면서, 그 경제학자들이 남긴 지적 유산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UCL이라는 대학도 한국 사람들과 역사 속에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메이지 유신 전에, 조슈번이라는 지역에서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1863년에 당시 청나라를 통해 영국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이 다섯 사람을 조슈 5인 혹은 장주 5인이라 부르는데, 영국에 들어온 후 UCL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국의 선진 문물들을 배우고, 일본에 돌아간 후 근대화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 다섯 젊은이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낯익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가 있습니다. UCL 도서관 뒤뜰에 가면, 일본정부의 후원을 받아 세워진, 이 5인을 기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UCL에 재직 당시 가끔 이 비석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역사실적 추론(counterfactual reasoning)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만약 그 당시 이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닌 혹은 그들이 가기 전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영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돌아와 당시 조선의 근대화 기초를 마련하고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비실험(non-experimental)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학 이론들이 제시한 경제 법칙들은 경제 현상들에 대해 오로지 관측(observation)을 통해 규명될 수 있을 뿐,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들처럼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경제 법칙들을 검증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방법론은 지난 3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고, 인간의 심리현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기존의 전통 이론들에 유의미한 수정을 가한 행동경제학을 탄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실험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의 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기존의 경제 이론들의 검증을 위한 새로운 실증 자료들과 비판적인 시각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분야가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체에 미친 공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은, 이미 10여 년 전인, 2002년에 실험심리학자 Daniel Kahneman과 실험경제학자 Vernon Smith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영미권과 유럽 대륙에서는 실험방법론의 전통이 오래됐으며, 수많은 학자들이 이 두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이 두 분야는 아직 생소합니다. 지난 가을학기 정치학과와 안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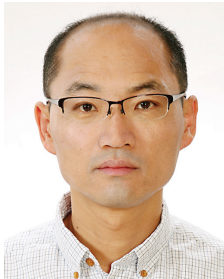
교수님과 언론정보학과와 한규섭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실험사회과학' 모임을 격주로 진행했습니다. 이 모임은, 많을 때는 30여명이나 되는 석/박사과정과 학부과정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실험 방법론을 통해, 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은,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이론에 치우친 기존 경제학에 대한 반성, 그리고 실증분석에 대한 갈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한국 대학의 연구 환경이 외국 우수 대학들에 비해 열악하고, 실험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포함한 경제학 전반의 전통과 연구 성과가 많이 뒤쳐져 있지만, 한국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서울대학교의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학문 세대가 맡은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2000년에 유학을 떠날 당시의 서울대와 지난 가을 학기에 부임해서 본 서울대는 많이 다릅니다. 수많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저를 가르치셨던 여러 은사님들도 퇴임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교수님들이 남기신 업적과 유산들, 그리고 새로 부임한 교수님들이 이루시고 계시는 성과들, 이 속에서 제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첫 학기였고 이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인데, 16동 사회과학대학 6층에서 바라보는 관악산 자락과 캠퍼스는 다양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름답습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8)
- 서울대학교경제학 석사 (2000)
- New York University, USA경제학 박사 (2006)
-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경제학과 조교수 (2006~2013)
-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경제학과 부교수 (2013~2014)
- 서울대학교경제학부 부교수 (2014~현재)

신임 서명환 교수 인사말



서명환 교수

안녕하세요. 지난 가을 학기에 경제학부에 부임한 서명환입니다. 박사학위 후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약 십 년간 근무했습니다. 출근 한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그곳의 환경이나 동료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모교인 서울대로 오게 되어 이 또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면을 빌어 그 동안 저를 도와주신 가족 및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량경제학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로 비선형 시계열 모형, 특히 변환점(change-point or threshold)이 있는 공적분(cointegration) 모형에서의 추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거시경제변수들이나 금융 변수들과 그들의 특정한 관계들이 가지는 시계열의 특성들을 연구하는데 있어 비선형성, 단위근(unit root)의 존재, 공적분 등은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제 박사학위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적게 되어 있던 비선형성과 공적분이 상존하는 모형에서의 통계적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은 딱딱하긴 했지만 매디슨에서 생활은 상당히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한 관계로 유학의 첫발을 내딛는데 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그곳에서 공부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게 되어, 여러 면에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료 교수가 된 김진우 교수와 같은 아파트에서 살며 서로 의지했고, 배우자도 그곳에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돌아해보면 매디슨은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준 곳이었습니다.

런던 정경대에서의 생활은 주위의 좋은 동료들 덕분에 연구의 깊이를 좀 더 키울 수 있었던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는 연구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된 시간이기도 했구요. 이 기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박사학위에서 시작했던 비선형 모형들을 다양한 틀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비선형 모형이라고 하면 그 범주가 너무 컸지만, 실제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 왔던 모형은 변환점

모형이나 체제전환 모형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 활동에서 불황과 호황이 있고 각각의 상황이나 체제에 따라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변수들의 값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이런 변수 값들의 변화는 시간이 흘러 감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경제변수들, 가령 산업생산의 값이 알려지지 않은 변환점을 넘어 감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환점의 존재여부를 검증하고 추정해서 그 추정치에 연루된 불확실성을 알아내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요즘 빅데이터로 알려진 변수들이 아주 많은 상황(high-dimensional models)에서 경제모형을 추정하거나 경제변수들의 미래치를 예측할 때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서 예측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통계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이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기존에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우선은 데이터의 사이즈에서부터 아주 다양합니다.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가 2010년에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인류가 2003년까지 축적했던 정보만큼의 데이터가 이제는 매 2일 마다 축적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져 정보의 양은 더욱더 방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의 경우 기본적인 통계량조차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들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왔으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경우 이렇게 방대한 정보 활용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물론 구글,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적인 접근법이 유용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데이터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 정도로 방대하지 않더라도 세금관련 데이터 등 실제로 방법론만 존재하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공적인 데이터도 많이 존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들을 경제모형의 분석이나 미래예측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이슈는 변수들의 숫자가 각 변수의 관측치에 비해 많으면 위에서 언급한 만큼의 빅데이터가 아니라도 여전히 챌린징한 문제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연구자의 다소 자위적인 기준으로 변수들이 선택되고 있고, 아니면 기존의 잘 알려진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변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관측한 데이터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선택되는 변수들이 크게 바뀌거나 그로부터 수반되는 통계적 추론의 결론들이 바뀌는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경제 변수들에 많은 경우 측정오차가 적지 않게 존재하므로 이는 경제 분석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들은 기존에 잘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좀 더 기술적 용어로 모형선택(model selection)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류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과 그 오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법들이 지난 약 이 십년간 통계학분야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연구되어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금의 경제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참가했던 전미 경제학회에서 이 주제에 관해 많은 세션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련 강의실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자리가 없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 분야에 대한 놀라운 관심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는 이런 빅데이터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제가 기존에 연구했던 변환점 모형들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와 그 추정치들의 통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특히 변환점 자체에 대한 추정과 통계적 추론의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방대한 양의 변수들이 존재할 때 이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모수적 방법과 변환점의 존재 여부는 쉽게 혼동될 수 있고 그래서 두 다른 모형들을 구분해 내는 정밀한 통계적 방법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약간 더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지만 제 연구들은 경제성장 모형이나 주기형성 모형 등 실증적 연구들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제가 학생으로서 들었던 수업들의 깊은 감동을 교수로서 재현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뭇 듭니다. 한편으로 서울대의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를 다시 검증하고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학기 동안 보여주셨던 주위의 여러 교수님들의 따뜻한 환영과 그분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들은 저를 채찍질 하는 것 같아 긴장도 됩니다.

아침에 집에서 연구실까지 조용한 언덕길을 걸어오다 보면 그 동안 런던에서 기차로 출퇴근하며 놓쳤던 주변 환경들을 돌아보게 되고, 걸으며 생각에 잠기게 되어 소소한 행복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주변의 여러분들의 덕분에 이뤄진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7)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9)
- 위스콘신대학 경제학 박사 (2004)
- 런던정경대학 조교수 (2004-)

경주



황광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주”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지요?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다보탑, 수학여행, 경주빵 등 경주와 연관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저는 “수학여행”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긴 갔는데 아무 것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1월 초에 경주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 잘 알거나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세 유럽사, 미국사, 일본사, 중국사 등 외국의 역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안동 하회마을에서의 경험 덕분입니다. 작년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마을 안에 있는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것이 바로 전통이고 문화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비추는 가운데 좁다란 골목을 숨바꼭질 하듯 산책할 때에는 마치 사극의 엑스트라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밤공기 내려앉은 하회마을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선명합니다. 분위기에 젖다 보니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버렸습니만, 여하튼 안동 하회마을에서의 경험 이후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음 여행지로 “경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 대한 여행정보를 찾으면서 “경주를 제대로 보려면 일주일도 부족하다”는 누군가의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제대로 보려면 일주일도 아니라 한 달도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3박 4일의 짧은 여정으로 다녀왔지만 유적지를 다니면 다닐수록 “아, 이전 꼭 가봐야 해”하는 곳들이 넘쳐났습니다. 수학여행 때에는 곳곳은 친구들과 장난치느라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유적들이 나이 사십을 앞두고 서야 비로소 제 눈앞에서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거대한 나대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황룡사 터를 거닐면서는 컴퓨터그래픽 화면처럼 당대 최고, 최대의 목조건물이었던 황룡사와 이를 둘러싼 담장들이 눈앞에 환하게 그려졌습니다. 예

전 같으면 한번 훑어보고 지나갔을 것 같은 석굴암 앞에서는 거대한 돌을 재고 다듬었을 석공들의 노력과 신앙심이 느껴졌습니다. 복원을 위해 전면 해체를 하여 현재는 그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석가탑 앞에서는 예전에 수학여행 왔을 때 보았던 기억을 어렵게 꺼내보면서 아쉬움을 달래었습니다. 야산 크기만 한 당대 귀족들의 무덤들이 모여 있는 대릉원에서는 황금왕관과 허리띠를 두른 무덤의 주인들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에 찾아간 안압지(제가는 여전히 이 명칭이 익숙하지만 요새는 “동궁과 월지”로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영화 8도에 칼바람까지 부는 추운 저녁이었지만 시원 손을 연신 불어대면서 열심히 사진에 담았습니다. 또한 경주국립박물관은 얼마나 전시물이 알차던지요. 박물관 안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제가는 “에밀레” 종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데 동문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은 비록 아기를 낳는 솜씨에 넣고 만들었다는 전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신비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비천상의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널리 알려진 문화유적들이 경주를 찾는 사람들의 “필수과목”과 같다고 한다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가볼 만한 “선택과목”들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 머물면서 느낀 경주의 가장 큰 매력은 경주라는 도시 자체였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전형적인 지방 소도시의 외형을 갖고 있는 경주 시가지가 아니라 시내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달리면 나타나는 과거 신라의 수도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운전을 하다 보면 험난한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을 지나게 되는데 점차 산세가 완만해 저서 구릉지로 변하는 딱 그 부분에 경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트막한 구릉 지대에 왼쪽으로는 형산강이 오른쪽으로는 토함산이 위치한 지형은 풍수지리에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여유와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여러 차례 전란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 지어졌겠지만 경주라는 “땅”의 모습은 과거의 신라의 화랑이 말 달리던 곳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차도와 건물 위치 등을 보면 과거 신라 시대의 왕궁, 대로, 토성 등 도시 구획이 상당 부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옛 왕궁의 뒤편에 위치하면서 마치 경주를 품에 안고 있는 듯한 남산(南山)은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은 일정 관계로 극히 일부분을 그것도 차량이 닿는 곳에만 들렸을 뿐이지만 남산은 어찌 보면 신라의 불교문화의 정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등 다른 유적들이 워낙 유명하여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남산 곳곳에는 신라 시대의 유적들, 특히 불교와 관련된 불상, 조각, 석탑 등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곳들이 차량이 닿지 않는 산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아 가기 위해서는 등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덕분에 유적이 잘 보존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못한 일정과 아직 어린 아이들 때문에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지만 몇 년 후 다시 경주를 찾게 되면 남산의 곳곳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남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신라의 도읍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한국에서는 갈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동남아 등 해외로 간다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여 전국의 여러 산들을 다녀 보기는 했지만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관광지가 우리나라에 많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동과 경주를 다녀오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전란과 민란을 거치면서,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우리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곳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꼭 먼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개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부산, 인천, 군산, 통영 등 항구도시에서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단서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먼 곳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서울의 고궁과 성곽에서 지금은 그 경계가 희미해진 한양 도읍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 여행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다소 냉소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제게 많은 깨우침을 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동문 선배님 여러분, 추위 아니면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을 어렵게 하는 이번 겨울도 지나가고 곧 화창한 봄이 올 것입니다. 이번 봄에는 경주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특히, 경주를 가보신 적이 있지만 불국사, 석굴암의 모습이 TV 애국가 화면에서 봤던 모습으로밖에 기억나지 않는 분들께 강하게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수학여행 때 몰래 술 마시고 화투 치던 추억(그러다가 선생님의 걸려서 기합 받은 기억은 옵션)과 객지에서 용기를 내어 수줍게 고백했던 그 시절 그 분과의 아련한 추억이 덤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학사 (96학번)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한국가공공사 자문변호사
- 現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자문변호사

운동 이전에 재미, 클라이밍



손석준 (석사과정)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요즘 조금 지나치지 않나 걱정될 정도로 폭 빠진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운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암벽여제’ 김자민 선수가 클라이밍 월드컵 리드 부문 시즌 랭킹 1위를 몇 년째 수성하고 그런 이유로 언론에 소개가 많이 되면서 뜨고 있는 소위 ‘핫한, 스포츠계의 히니버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긴, 매일 연구실에서 책만 보고 통계 프로그램만 돌리던 경제학부 대학원생 두 명이 (권구현 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면 정말 인기가 많아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인공 암벽에 홀드(손으로 잡거나 발로 디딜 수 있게 되어 있는 요철)를 설치해 놓고 손과 발만을 이용해 암벽을 등반하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크게 세 종목으로 나뉘는데, 로프 착용 없이 4~5미터의 여러 코스를 최대한 많이 등정하는 것이 목표인 볼더링(Bouldering), 로프를 활용해 비교적 긴 15m 정도의 암벽을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높이 오르는 것이 목표인 리드(Lead), 10~15m 암벽을 올라가는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Speed)가 그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클라이밍을 배우면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점은 많은 홀드들이 자연석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형상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홀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해서 자연암벽을 등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클라이밍의 유래를 알고 나서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애초에 자연암벽에서의 암벽 등반은 정상을 등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등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기보다는 등반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정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려운 루트를 통해 등정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여 등정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클라이밍은 단지 정상 등정을 위한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재미를 찾고 경쟁의 요소를 갖춘 ‘스포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점은 인공암벽등반을 자연암벽등반을 위한 연습 수단으로밖에 인지하지 못한 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클라이밍은 근력과 지구력 못지않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똑같은 홀드에 위치해 있더라도 그 홀드에서 취하고 있는 자세에 따라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초심자의 경우 팔을 구부리고 다리를 펴서 홀드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팔을 펴고 다리를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체력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자세가 많은 클라이밍의 특성 상 다리보다는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보다는 다리에 무리를 주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홀드에서 다른 홀드에서 이동을 할 때에도, 어떠한 자세와 기술로 이동을 하나에 따라 체력 소모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루트 파인딩(Route finding), 즉 자신이 어떤 홀드들을 사용할 것이고 또 각 홀드에서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여 다음 홀드로 나아갈 것인지 등을 본격적인 등반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자신이 클라이밍에 쓰이는 여러 기술들을 완벽하게 익혔더라도, 상황에 따라 유리한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경우는 몸을 옆으로 회전시켜 벽에 밀착시킨 다음 이동하면 훨씬 편한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미리 결정하여 실제 등반 중에서 시간 및 체력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로 등반을 하다 보면 특정 구간에서 사용하려고 하였던 기술이 통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므로 루트 파인딩에서 결정하였던 사항들을 수정하는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벽 위에서 기술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수정하는 일은 많은 체력 소모를 요하기 때문에, 처음 루트 파인딩에서 최대한 정확한 결정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통해 본인의 몸이 어떤 구간을 어떤 기술로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술들을 익히고, 정확한 루트 파인딩을 통해 주어진 코스를 깔끔하게 정복하는 것이 선수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클라이밍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클라이밍에 대해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운동이 어디에 좋은 것인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클라이밍은 운동 이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물론 클라이밍은 체력 소모가 큰 전신 운동이므로 체력을 키우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 당

연히 도움이 되고, 암장(클라이밍 센터)에 오래 나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좋은 몸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 축구를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재밌기 때문에 시작했듯이, 클라이밍도 ‘운동’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스포츠로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근성은 없지만 재밌는 것에는 폭 빠지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께는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암장에서는 다른 운동과는 차별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술과 음식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내일 모레 제 클라이밍 코치님 주최로 암장 사람들과의 ‘치맥’ 회식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에 알코올은 근육을 파괴하는 요소로 적대시되는데, 저보다 클라이밍을 더 오래 한 제 친구 천의진(법학과 석사과정) 군은 “알코올을 섭취해야 뭉친 근육이 적당히 풀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또 바로 클라이밍을 할 수 있다”는 재미있는 논리로 제게 술을 권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실체가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종류의 유희하고도 느긋한 기운이 암장을 감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이밍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다니는 암장에는 중학생부터 50대 아주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이 계십니다. 특히 그 아주머니께서는 암장에서 운영되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클라이밍 기술뿐만 아니라 클라이밍을 위한 체력을 만들어 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셔서 다니시는 분이신데, 제가 몇 번의 시도에도 완등하지 못한 코스를 단 한번 만에 완등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남성 회원분들 못지않게 여성 회원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력은 조금 약하더라도, 가볍고 유연하기 때문에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클라이밍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남녀 성비가 적절하다는 것은 클라이밍의 또 다른 매력이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이유로 클라이밍에 끌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이밍을 배우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울시 여러 곳에 위치한 암장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언론에 소개가 많이 된 덕분인지, 서울에만 약 30개 이상의 암장이 운영 중이고, 거의 각 구마다 한 개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암장이 없어서 조금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근처 암장에서 교육을 받고 오시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근처에 인공 암벽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암벽이기에, 교육 없이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삼가셔야 합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대부분의 암장들은 실내 암장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무리없이 즐기실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클라이밍입니다. 이번 겨울을 스포츠 클라이밍과 함께 나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잊고 있던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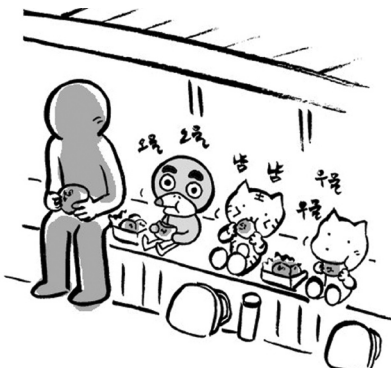
백승현 (학부 3학년)

마트 직원은 진열대를 어지럽힌 아이를 나무라다가 그만 울리고 만다. 그러자 우는 아이의 어머니는 되레 직원에게 소리친다.

“북에서 온 것 같은데 조용히 돈이나 벌다 갈 것이지!”

이번 겨울에 연재되어 며칠 전 완결된 따끈한 웹툰¹⁾ <청둥아 진정해!>의 한 장면이다.

만화의 주인공 ‘청둥이’는 통일 이후 가족을 부양하고자 북한 지역에서 서울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청둥오리이다.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 받는 일도 하고 날짐승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배달 업무를 맡기도 하면서 점차 서울 생활에 적응해나간다. ‘다진 소고기와 빵’을 햄버거라고 부르고 시간에 쫓겨 즉석음식으로 끼니를 급히 때우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 익숙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낯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힘들거나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청둥이의 원동력은 북녘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힘들 때 곁에 함께 있어주는 동무 ‘냥이’(고양이)와 ‘현둥이’(강아지)의 따뜻함에서 나온다.



웹툰 <청둥아 진정해!>도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 또한 큰 대중적 관심을 받았다. 영화 <국제시장>은 동족상잔의 전쟁, 흥남철수, 파독 광부와 간호사, 월남전, KBS 이산가족 찾기 특별생방송 등 그간 파란만장했던 상전벽해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해내었다. 특히 영화 속 이야기가 어느 먼 타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등곳길 지하철에서도 마주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이고 동네 공원에서 마주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영화 속 주인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어르신들께는 존경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두 작품을 감상한 후에 드는 생각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그리고 잊고 있던 것들이 많았다는 점이었다. 우선 남북 분단을 너무 당연히 생각해왔던 면이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문제가 통일 문제이다. 웹툰 <청둥아 진정해!>의 배경은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일된 한국이다. 잊기 쉬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통일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중학교 2학년 국어수업에서 배웠으나 시험을 마친 이후로 다시 못 읽어본 이강백의 희곡 <들판에서>를 비롯한 국어교과서 속 관련 작품을 잠깐 다시 꺼내 읽어보기도 하였다. ‘통일’이라 하면 통일비용부터 먼저 생각나는 반면에, 지금 이 시간에도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은 익숙한 나머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될 통일편익은 잊고 있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뿐만 아니라 비용과 편익이라는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성숙한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측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음을 새삼 발견하였다.

한편, 윗세대의 헌신이나 노고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잊고 있던 면이 있었다. 학교에서 국사시간, 사회시간, 도덕시간에 교과서로 배운 내용이고, 집에서는 “아빠 어렸을 때는~”으로 시작되는 말씀으로 자주 들은 내용이지만, 영화 <국제시장>이 새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파편화된 기억과 내용들을 한데 뭉쳐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분단’,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과 같은 커다랗고 특별한 경험을 겪은 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상전벽해가 이미 다 끝난 뒤에 태어났으므로 오직 책이나 영상물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만 공감할 수 있는데 진로고민과 취업준비가 어렵고 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해볼 기회가 적은 경향과 현실이 있다. 웹툰 <청둥아 진정해!>가 잊히기 쉬운 우리의 미래를 다루었다면, 영화 <국제시장>은 잊히기 쉬운 과거를 다루어준 셈이다.

미래를 배경으로 한 <청둥아 진정해!>와 과거를 배경으로 한 <국제시장>은 모두 오늘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두 작품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단어는 ‘묵묵함’이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오늘도 사람들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저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해왔고 할 것이며 하고 있다. 청둥이는 북녘에서 온 청둥오리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 더 넓게는 새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의 표상이기도 하다. <국제시장>의 주인공 윤덕수 또한 전쟁 이후 남은 것이 별로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더 확장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일터에 나가 헌신하는 가장의 표상이기도 하다. 학교를 떠나면 곧 청둥이가 되어보기도 하고 윤덕수가 되어보기도 할 것이다. 반대로 청둥이를 만나기도 하고 윤덕수를 만나기도 할 것이다.

묵묵히 일을 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반면에 쉽게 포기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면 일을 제대로 못 배울 수 있는 경향도 있기는 하다. 즉 묵묵함이 경제에 기여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변의 무관심이나 물이해가 동반되면 차가운 상처와 거친 갈등을 남기고 일으키기 쉽다는 사실을 두 작품이 지적하고 있었다. 만화 속 ‘냥이’와 ‘현둥이’가 청둥이 곁에서 힘을 주는 따뜻한 동무로 존재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힘을 주면 물질적 풍요를 떠나 보다 행복하고 다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역시 도덕교과서에서 배운 바이기도 하고 상식에 속하지만 그동안 묵묵함을 당연하게 생각해오거나 역지사지의 태도를 잊고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돌아켜볼 수 있었다.

겨울방학을 맞아 여러 작품을 감상하며 간접 경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기도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읽은 교과서 속 작품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중·고등 학생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보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당시 감상한 작품을 다시 한 번 감상해보는 것이다. 한편 예전에 감상하였던 작품도 좋지만 새로운 작품을, 나아가 새로운 장르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임을 느꼈다. 특히 웹툰을 단순한 흥미 위주의 만화로 치부하여 그간 도외시했던 면이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웹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몇몇 웹툰을 찾아 읽으려 하고 있다는 점은 간접경험의 폭을 넓히는 데에 있어 작은 진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 인터넷 연재만화

경제학부 Rationales 야구팀 소개



1. 동아리 소개

Rationales는 2012년 창단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게 된 경제학부 야구동아리입니다. 창단 첫 해부터 스누리그 B조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이후로도

줄곧 리그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신 격인 Eonus가 대학원생 위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의 Rationales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아우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입 부원들의 충원으로 한층 두터운 선수층과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一球一生, 一球一死' -항상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패기와 열정의 팀, 바로 경제학부 Rationales입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김영식 교수님과 김세직 교수님, 두 분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는 Rationales에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한 야구실력을 바탕으로 훈련뿐만 아니라 정식 시합에도 출전하여 활약하시는 교수님의 모습

에서 부원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두 분 교수님은 부원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교수님들의 크나큰 애정을 바탕으로 현재의 Rationales는 더욱 탄탄한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동아리 활동

1) 스누리그

스누리그는 2월 말부터 가을까지 매년 시즌제로 치러지는 교내 리그입니다. 현재 'Veritas', 'Luxmea'라는 양대 리그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13개의 팀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시즌을 꾸준한 모습으로 잘 치러내는 것은 단순한 요행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특히나 우승에까지 이르는 것은 참 지난한 일입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그를 통해 얻는 승리의 기쁨부터 패배의 안타까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부원들

은 정말로 '하나로서의 팀'이 되어갑니다. 그러한 점에서 Rationales 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스누리그 활동입니다.

매 시즌이 끝난 후 플레이오프를 통해 각 리그의 우승팀을 가르고, 양대 리그의 우승팀은 영예의 우승 트로피를 놓고 서울대의 월드시리즈인 '관악시리즈'에서 겨루게 됩니다. 현재 Rationales는 2014년 Veritas리그에서 2위의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으며, 혹한으로 인해 연기되어 2015년 2월에 재개되는 포스트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ationales는 투·타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자랑하며, 특히 팀타율 1위에서 잘 드러나듯 타선은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매 경기 '재미있고 화끈한' 야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 교내 토너먼트 & 외부리그

스누리그뿐만 아니라 총장배 구기대회, 종합체육대회, 총동문회배 등 학기 중간마다 각종 토너먼트 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경기라도 지면 바로 탈락하는 토너먼트의 특성상 매 경기마다 긴장감이 넘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약팀으로 평가되던 팀들이 강팀을 꺾는 '이벤트'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게 리그와는 또다른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대회들은 후보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Rationales는 특히 교내리그 외에도 외부리그에 활발히 참여하여 신입부원 및 후보선수들에게 최대한 많은 출전기회를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져진 고른 전력을 바탕으로 2014년 서울 내 리그 중 하나인 치우리그에 참여해 우승을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3) 친선경기 & 훈련

Rationales는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또 다른 팀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종종 친선경기를 갖습니다. 팀 내에서 OB(Old Boys)와 YB(Young Boys)간의 청백전을 벌이기도 하고, 연세대나 여타 대학 동아리·사회인 야구팀과 시합을 가지기도 합니다. 투수로서 마운드에 서 보거나 유격수로서 수비의 중심을 잡아보는 등 정식 시합과 달리 친선경기에서는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펼쳐볼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선수로서의 기본은 훈련인 만큼 개인적으로, 또 팀 차원에서 매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 아침에 팀 훈련을 실시하며, 간단한 캐치볼부터 강도 높은 수비 훈련인 핑고까지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처음 야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타격폼, 투구폼을 익히게 함으로써 부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빠른 실력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팀 차원에서 기존 선수들이 항상 배려합니다.

물론 동아리 구성원들이 전문 운동선수가 아니기에 학교생활, 특히 학업이 우선시되는 시험 기간에는 훈련을 자제합니다. Rationales는 '즐거이는 야구'를 모토로 하고 있기에 강압적 분위기로 훈련에 임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재미있는 야구를 직접 해 보고 경기에 뛰어보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동아리 훈련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4. 선수 모집

Rationales는 수시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기만 한다면 야구를 처음 하는 학생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학교에 있는 포스터를 보고 연락하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야구부 Rationales'를 통해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 (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도 하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 사업단은 2014년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15회
- ▶ 경제사 워크숍 8회
-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6회
- ▶ Brown Bag lunch 세미나 6회
- ▶ 단기해외연수지원 5회
- ▶ 국제 학술대회 2회
- ▶ 특별강연 2회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Francis Bloch (Paris School of Economics)
"Rumors in Social Networks"

Ron Siegel (Northwestern University)
"Large Contests"

Yves Gueron (서강대학교)
"Failure of cooperation in dynamic games with imperfect monitoring"

Haelim Park (Office of Financial Research, U.S. Treasury)
"Liquidity Risk, Bank Networks, and the Value of Joining the Fed"

Yundong Tu (북경대학교)
"Root N Density Estimation in Semiparametric Regression Models"

Oliver Linton (University of Cambridge)
"Multivariate Variance Ratios"

Kato, Kengo (University of Tokyo)
"Testing many moment inequalities"

Edo Gallo (Cambridge)
"Efficiency and equilibrium in network games: An experiment"

Junichi Itaya (Hokkaido University)
"Should income inequality be praised? Multiple public goods provision,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welfare"

김영주 (Kingston University)
"The Long-run Effect of Education on Obesity"

Edwin Lai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rowth and Protection of Ideas in Closed and Open Economies"

Carl J. Dahlman (Global Development Research in the OECD)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서명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Asymptotics For Maximum Score Method under General Conditions"

이정환 (한양대학교)
"Debt Servicing Costs and Capital Structure"

최승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ynamic) Inconsistencies of Intertemporal Choice"

경제사 워크숍

양동휴 (서울대)
"16세기 영국 가격혁명의 재조명"

김도형 (KDI)
"The impact of restaurant smoking bans on dining out expenditures: Evidence from panel data"

손기태 (국민대)
"The World Record in the Improvement in Biological Standard of Living in Korea: Evidence from Age at Menarche"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Business Cycle and Researcher Mobility"

선재원 (명택대)
"Job Security and Welfare Capitalism: Increasing Service Length at the Hudson's Bay Company, 1880-1945"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1938년 뉴딜 공정노동기준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의 의미: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

박복영 (경희대)
"Motivations for Korea's foreign aid allocation"

이영훈 (서울대)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문화의 토대에서"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정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Business Cycles and Individual Health Status"

박정호 (서울대 경제학부)
"Optimal Capital Structure of LEITS"

김명원 (서울대 경제학부)
"Forecasting Bankruptcy more Frequently: A Simple Hazard Model with Information Update"

박준태 (서울대 경제학부)
"소득별 차별출산력 분석"

김혜진 (서울대 경제학부)
"내외국인 노동자간 교육투자수익률 비교"

변준석 (서울대 경제학부)
"주택연금연구"

BK21플러스사업단 Brown Bag lunch 세미나

이석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Cycle time of technology as a criterion for

sectoral specialization by latecomer economies"

권구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Identification Power of smoothness Assumptions in Models with Counterfactual Outcomes"

김효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Role of big business in the growth-inequality nexus"

강지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Are the Effects of "Anticipated" Government Spending Shocks Different from the Effects of "Unanticipated" Shocks?"

홍정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과 의사 유인 수요 (Supplier-Induced demand)"

차준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tock return autocorrelation under stages of business cycle: an empirical evidence"

BK21플러스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단기연수지원(논문발표지원)

강지혜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The 14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에서 논문발표

이준영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The 26th Annual EAEPE Conference 2014"에서 논문발표

이종호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Asia Pacific Innovation Conference 2014"에서 논문발표

박진혁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Asia Pacific Innovation Conference 2014"에서 논문발표

김효석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Asia Pacific Innovation Conference 2014"에서 논문발표

BK21플러스사업단 공동주관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국제심포지움] Innovations systems and Economic Performance

[국제워크숍] 소득불평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국제기구와의 대화

특별강연

[채용설명회] 국제통화기금(IMF) HR Director Mr. Plant 초청 강연

[특별강연] 김현철 교수 (Cornell University), 김성훈 교수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김부열 박사 (Columbia University) 초청 개발경제학 특강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여

2014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796명 중 204명(전액 장학금 24명), 대학원생 161명 중 30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항상 장학금을 통해 36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208명, 대학원생 13명이 수혜를 받았다.

2014학년도 항상장학금 수여식

2014년 8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26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항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014년 제13회 김태성 기념장학생 선정

2014년 12월 2일 경제학부 소회의실에서 김태성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재원, 이병욱, 강지혜, 안소영(이상 박사과정), 권구현(석사과정), 강운구(학사과정)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경제학부는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우수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김태성 논문 장학금을 1998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14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4년도 후기 졸업식이 8월 28일(목) 10시 30분에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3명의 박사를, 21명의 석사를, 42명의 학사(최우등 7명, 우등 22명)를 배출하였다.



2015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5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52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3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석박 통합과정은 석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종 1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4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4년 12월 22일 ~ 2015년 1월 23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 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경제원론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계학', '경제수학' '정치경제학입문', '계량경제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經友의 밤'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학생자치 동아리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주최로 2014년 11월 14일 '경우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경제학부 소속의 교수, 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사제 간, 선후배 간,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매년 2학기(11월 중)에 경제학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장단을 포함한 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석하여 經友의 밤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4학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 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박지형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이근	Studie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Strategy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y
주병기	Advanced Economic Theory (Economic Mechanism)
이철인	Studies in Labour Economics (Special Issues in Labor Economics)
Elias Sanidas	Microeconomics International 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2
Oyvind Thomassen	Reading and Research Advanced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Introductory Statistics for Economists

2015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전기 모집

경제학부는 2015년도 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2명의 석사와 1명의 박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총 13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2명의 재외국민 학생과 1명의 중국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4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4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이 중 3명은 2014년 2학기에 파견되었고, 1명은 2014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파견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의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상대 항상장학회 10,000,000(학술)
- 이필상(경제학부 초빙교수) 5,000,000원(장학)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계좌번호 : 079-17-000136
- ▶ 예금주 : 서울대 발전기금
- ▶ 용도지정 :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mail : kang97@snu.ac.kr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제 29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85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과정의 특징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 | |
|---|--|
| ① 모집인원 40 명 내외 |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
| ②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 ⑥ 모집안내 - 전화 : (02) 880-5432 - Fax : (02) 875-9867 |
|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 - email : asp@snu.ac.kr |
| 5) 기업의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 Home Page : http://ier.snu.ac.kr |
|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주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 ④ 모집횟수 연 2회(봄학기 모집 : 1~2월, 가을학기 모집 : 7~8월)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

ASP 28기 회원명단

- | | |
|------------------------------|----------------------------------|
| 1. 강우수 삼성물산 전무 | 13. 송창록 (주)SK하이닉스 상무 |
| 2. 강일진 한국기업평가(주) 본부장 | 14. 신광석 주식회사 케이티 전무 |
| 3. 광일순 동부로봇 前대표이사/사장 | 15. 안용환 금융감독원 실장 |
| 4.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 16. 이상율 신용보증기금 부장 |
| 5. 김종현 한국외환은행 서무영업본부 본부장 | 17. 이 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장 |
| 6.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 18. 이흥권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 7. 김천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파트너) | 19. 장만익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
| 8. 김학훈 이베스트증권 본부장 | 20. 장원재 삼성증권 상무 |
| 9. 나승렬 농협중앙회 상무 | 21. 정길용 금융결제원 부장 |
| 10. 박기훈 포스코 삼일고문(前대표이사/사장) | 22. 조용길 신한은행 본부장 |
| 11. 성기천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장 | 23. 조현수 IBK기업은행 남부지역본부 본부장 |
| 12.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 24. 최상록 NH농협은행 부행장 |



〈ASP 28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는 졸업생을 위한 학번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snu97113@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